



오시는 길



전북 군산시 영명길 29. 군산3.1운동 역사공원내 ☎문의 063-454-5940
- 주차는 금강장례식장을 이용해주세요.

우리 고장 군산의 3.1 운동사

군산3.5만세운동은 김병수(군산영명학교 졸업/당시 세브란스 의전학생)가 1919년 2월 26일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갑성으로부터 “독립 선언서” 200여매를 전달받아 군산 영명학교 스승인 박연세, 이두열에게 1919년 2월 28일에 전달함으로써 구체적인 거사가 시작되었다.

영명학교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3,500매) 복사와 태극기(수백 장)를 그리고 만드는 작업을 비밀리에 착수하여 3월 6일(음력 2월 5일) 서래장날을 기하여 전개하되, 영명학교 교직원, 학생, 구암병원 사무원, 신자들과 일반 시민까지 참가 확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전모임의 결의와 준비로 3월 4일까지 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돌연 3월 4일 새벽 군산경찰서의 일본인 무장경찰 수십 명이 출동해 주도자인 박연세,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송정현 등을 구인(拘引)하는 바람에 사전 발각됨으로 좌절될 뻔 하였다.

그러나, 김윤실 교사를 중심으로 격분한 학생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3월 4일에 잡혀간 교사들의 석방을 위한 시위가 첫 만세 시위운동이 되었고, 일본 경찰이 1차 학생시위를 진압하고, 주동자를 유치한 후, 방심하는 사이 3월 4일의 만세 시위 진압이 자극제가 되어 만세시위는 더욱 열렬히 1919년 3월 5일에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 규모는 컸었다. 주로 학생들에 의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배부되었고, 체포를 면한 기독교 학교인 영명 남학교, 멜본딘 여학교 교사와 학생, 구암 예수병원 사무원, 구암교회 교인들이 합세, 백여 명으로 시작된 시위는 5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성난 노도와 같이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되었다.

군산 3.5만세운동은 28회(31,500여 명 참여/ 피살자 53명/ 부상자 72명/ 투옥자 195명)로 큰 상처를 남겼지만, 당시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인 득세 중심의 도시 속에서 자주독립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알리며 꽃피운 “한강이남 최초의 군산3.5만세운동(1919년 3월 5일 거사)”은 자랑스런 우리 고장 군산의 긍지요. 애국애족의 항일항쟁 운동으로써 호남지역 3.1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거사다.

1919년 3월 5일
영명학교로부터 터져 나온
희망과 의지의 함성속으로...

“

충혼상징 조형물

한강이남 최초의 3.1운동 발상지인 군산3.1운동 역사공원에 민족적 항쟁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나라사랑과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 대한의 투혼, 불굴의 독립정신을 표현한 상징조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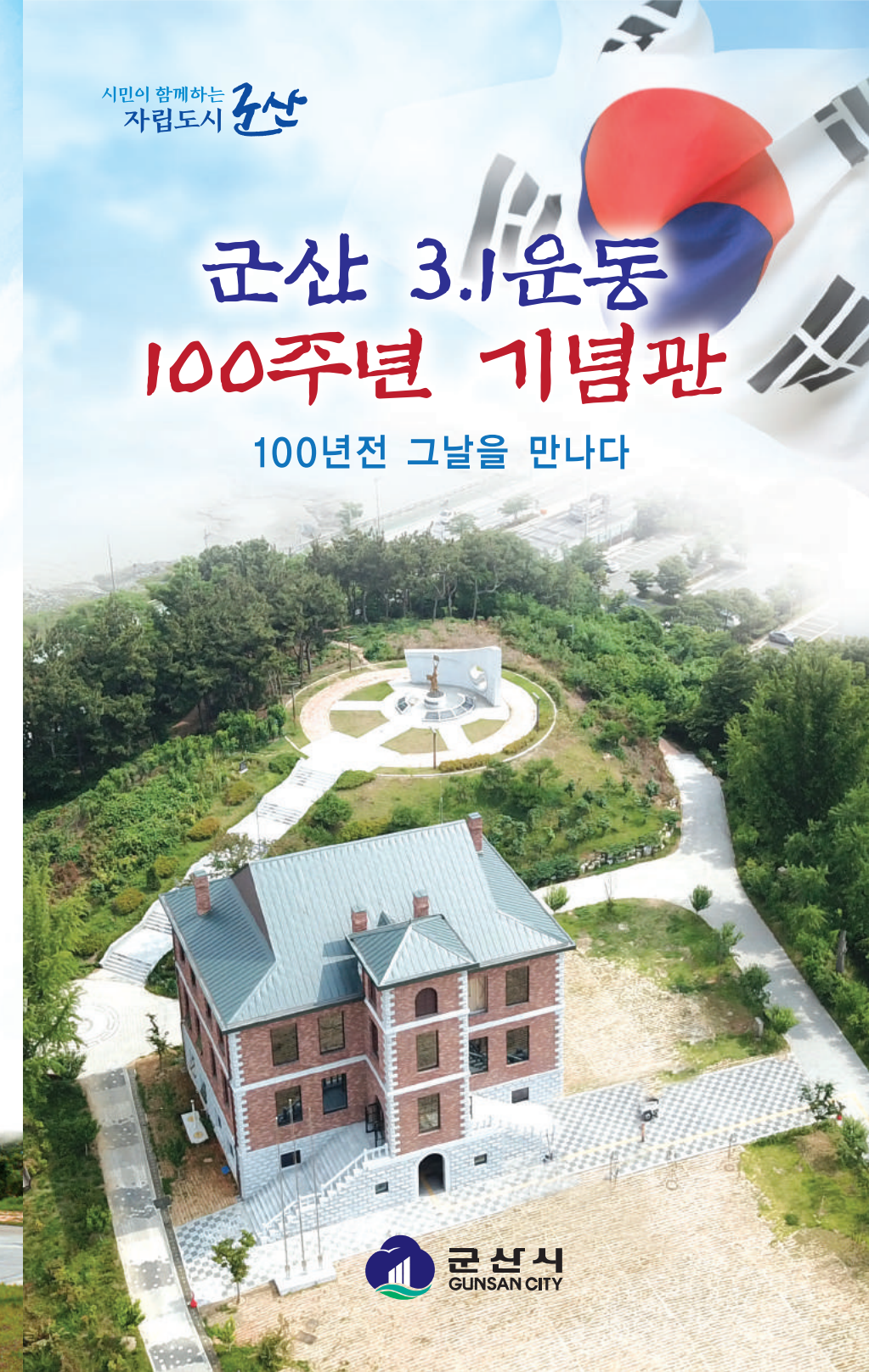
“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100년전 그날을 만나다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한강이남 최초의 3.1운동인
군산3.5만세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100년전 그날의 역사 재현 및
다양하고 재미있는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념관입니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평일 · 주말 09:00~18:00
관람료	성인 1,000원 / 청소년 · 군인 700원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시설안내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4년간)
면적	면적 969.2㎡ (300여평), 지상3층 1층 추모기록실 151㎡, 2층 역사재현실 160㎡, 3층 체험교육실 258㎡

관람시 주의사항



-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하여 전시관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전시실 입장 전에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 안내견 이외의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시실 내에서 플래시, 삼각대를 이용한 촬영은 삼가해 주십시오.
-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1F 추모기록실 (독립의 빛)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공간

- 3.1운동과 군산의 3.5만세운동
- 근대교육과 선교사, 선교스테이션, 영명학교등 미니어처
- 1900년대의 군산, 군산의 항일독립운동
- 추모의 벽, 그날의 군산 I



2F 역사재현실 (그날의 함성 속으로)

100년전 그들을 따라 그날의 함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느끼는 공간

- 그날의 함성, 김병수와 이갑성, 그날을 위한 준비
- 강제연행 후 구치소, 군산 3.5만세운동, 3.1운동 그 후
- 그들을 따라서, 그날의 군산 II



3F 체험교육실 (그들과의 이어짐)

아날로그와 디지털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다양한
나라사랑 체험 · 교육 공간

- 독립스테이지, 미로체험, 태극기 만들기
- 태극기 전달하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 겨레의 함성, 독립군 기념촬영, 그날의 군산 III

